

# ‘폐염전 부활’ 갈등 법정 간다

전남도 “천일염 수요 증가”… 10년전 문 닫은 염전 신규 허가

대한염업조합측 “이미 보상금 수령… 불허 해달라” 소송 제기

10여년 전에 문을 닫았던 염전의 부활을 놓고 기존 천일염 생산자와 신규 사업자, 행정 당국 간의 갈등이 법정 속으로 확대됐다.

1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대한염업조합은 최근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용한 ‘신규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전남도행정심판위는 권모씨 등이 신규 허가를 불허해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에서 소급산업 관리법 등 관련법상 시설요건 등을 충족하면 불허할 명분이 없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반발, 기존 생산사업자로

구성된 대한염업조합이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합 측은 신규 허가를 내줄 경우 유통시장 교란, 폐염전에 따른 보상금 수령, 정부 정책 신뢰 추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산 천일염은 지난 2008년 관련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

반면에 복원을 원하는 생산자들은 생산 증대에 따른 가격안정, 폐염전 (2954㏊)에 따른 염전 면적 축소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 등 행정당국은 친환경적인

시설 등을 전제 조건으로 국내외 수

요 증가 기대, 기존 염전과의 시너지 효과 등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천일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최근 천일염 생산자(218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62%는 ‘복원 반대’를, 38%는 ‘재 허가’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99~2004년 염전 520㏊(2954㏊)를 ha당 2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쇄했다. 당시 염전 구조 조정에 들어간 예산은 255억원, 400여 명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은 전국 염전 면적의 65%인 2700여㏊로 연간 260t를 생산하는 주산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광 불갑산 그리움의 꽃 상사화 축제

제13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9월20일~22일)를 일주일 앞둔 15일 불갑산을 뒤덮은 상사화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렸다. 이번 축제는 ‘애틋한 그리움! 사랑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해,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등의 각종 공연과 전시회, 공개 프로포즈 등의 부대행사로 꾸며진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 신안 천일염 생산자 날씨 걱정 던다

천일염은 기상 변화에 민감하다. 명품 소금 생산을 좌우하고 수확량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신안군 천일염 생산자들이 날씨 걱정을 덜게 됐다. 최대 1시간 전 기상 예보까지 받아 볼 수 있다.

신안군은 민간 기상예보사업자

인 (주)GBMine와 손잡고 다양한 날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천일염 생산자 855명에게 단문 서비스(SMS)와 스마트폰 영상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천일염 생산지 13개 읍·면을 3

### 郡,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기상정보 문자메시지 전송

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날씨를 16일부터 천일염 생산 종료일인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 실시한다.

중기예보(7일 전), 단기예보(3일 전), 초단기 예보(3시간, 1시간 전) 등 다양한 날씨 정보를 생산자에게 알려준다. /신안=이상신기자 sslee@

## 현대 삼호중공업 변함없는 ‘영암사랑’

현대삼호중공업(대표 하경진)이 추석을 맞아 ‘영암사랑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협력업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공헌사업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15일 영암군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최근 삼호중공업 내 40개 부서 직원과 81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벌여 2억 8000여 만원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지역상품권 구입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따른 경제적 유발 효과가 지역에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5

### 상품권 구매 경기 활성화

### 협력사 자녀들에 장학금

### 지역 사회공헌 활동 앞장

년간 명절선물 등으로 33억원 이상 ‘영암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주부대학 총동창회를 통해 지난 13일 현대삼호중 흥보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협력업체 자녀 대학생 6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장학금은 지난 6월 주부대학 이 연 ‘사랑의 일일호프’를 통해 마

련했다. 장학금은 근속 2년 이상 5년 미만의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현대삼호중은 이밖에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노인복지시설 목욕봉사,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이 2007년 2월 유통 개시한 ‘영암사랑 상품권’은 77억 원 규모로 2012년 12월 30억 원 규모로 확장되는 등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3일 현대삼호중 흥보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협력업체 자녀 대학생 6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전남도인재육성재단 하반기 장학생 선발

### 초·중·고·전문대생… 16~30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도인재육성재단은 16일부터 30일까지 2013년 하반기 인재육성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초·중·고교생과 전문대생은 전남지역 학교에 다녀야 한다.

선발 방법은 시장과 군수 또는 해당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전남인재육성재단에서 최종 선발하며 장학금은 10월 말 지급한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나머지 등록금 안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 폭을 확대했다.

전남도인재육성장학금은 지난 1995년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1만9800여 명에게 161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전남도인재육성재단(http://www.jnjinjiae.or.kr)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여수세계박람회

### 부지매각 또 불발

### 사후활용 불투명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자 2차 공모에도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박람회 사후 활용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15일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2차 사업자 공모 공고 후 지난 12일 마감결과 응모 사업자가 1곳도 없었다.

정부는 부지 25만㎡, 건물 8채 14만1000㎡, 스카이타워 등 시설물 7곳 등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을 세우고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감정가는 토지 2200억원, 건물 1800억원, 시설물 840억원 등 총 4840억원으로, 이를 매각해 정부의 선수자금 3846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참여 기업이 없어 무산됐다.

한편 전남과 경남 남해안권 10개 시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0일 국회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고충 민원 해결 “이동신문고 두드리세요”

### 권의위, 신안군 등 전남 4개군서 운영

신안군 등 전남지역 4개 군에서 국민권의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열린다.

15일 권의위에 따르면 오는 24일 신안군청을 시작으로 25일 진도군청, 26일 강진군청, 27일 원도군청에서 지역 주민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신문고가 열린다.

신안 이동신문고에서는 군청 소재지인 압해읍으로 배를 타고 나와야 하는 선 주민을 위해 암태도에 소규모 기동상담반을 배치한다.

개별민원 상담과 별도로 천일염 생산단지를 방문, 천일염 생산자의 고

는 제도다.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협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창구다.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됐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공공분야 예산 낭비,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의 침해신고 접수도 한다.

/오광록기자 kroh@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kr 또는 ipalg@ipalg.co.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